



불법 도축·폭염 속 경주... 말 잔혹사

농장서 말 불법 도축 50대 축산물관리법 위반 입건
현장에 퇴역 경주마 등 말 4마리·흑염소 1마리 방치
정오에 시작하는 야간경마... “경기 취소 기준 마련”

제주에서 퇴역 경주마가 불법 도축 현장에서 발견되고, 연일 내려지는 폭염특보 속에도 경마가 진행되는 등 말 복지 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제주시는 말고기 식당을 운영하는 50대 여성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제주도 구좌읍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말 1마리를 불법으로 도축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시 관계자는 A씨가 말을 도축하는 과정에서 법적 규제를 벗어난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 학대를 했는지 판단하고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말 도축은 허가받은 시설에서만 가능하고, 도축 전 기절을 시켜 고통을 최소화하는 등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제주자치경찰단은 A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시민단체 생명환경경관행동 제주비건에 따르면 불법 도축 이후인 지난 3일까지도 현장에는 도축된 말의 사체와 함께 말 4마리와 흑염소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단체는 동물들을 구조하기 위해 한국마사회 말 긴급구조체계에 연락을 수차례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동물들은 지난 4일 제주도에 의해 구조돼 보호시설로 이송됐다.

특히 구조된 말 1마리는 지난달 16일 퇴역한 경주마 ‘천행책’으로 확인됐다. 천행책은 퇴역한 뒤 ‘승용마’로 용도가 변경돼 등록됐으나, 승마장이 아닌 불법 도축 현장에서 발견됐다.

폭염 속 강행되는 경마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한국마사회가 여름 혹서기를 맞아 기수와 경주마 보호를 위해 ‘야간 경마’를 시작했으나, 첫 경주가 낮 12시 30~50분에

시작되면서 가장 더운 낮 시간을 피하지 못하면서다.

또 마사회가 지난 8일 “폭염중대 경보가 발효되면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경주 취소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보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란영 제주비건 대표는 “일주일 사이 제주와 경마 현장에서 한국마사회의 말복지 정책을 되문개 하는 세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며 “위기의 순간 마사회의 긴급구조체계가 작동하지 않았고, 승용마로 전환된 퇴역경주마가 어떻게 불법도축장에 이르게 됐는지 이동과 관리과정, 보호 대책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폭염 위험이 매우 높은 단계에 이르러서야 취소를 검토하는 건 말의 안전보다 경마를 우선시한다는 증거”라며 “기온과 습도, 더위체감지수(WBGT)를 고려해 경주시간 변경과 취소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한리일보는 한국마사회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으나 정기휴무일(월·화)인 관계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양유리기자



해안가 뒤덮은 파래 10일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해안가에 파도에 밀려온 많은 양의 파래가 쌓여 있다.

강희만기자

공매 아파트 논란 정치권 로비 의혹으로 확산

피해자대책위, 문대림 의원·시행사 대표 추가 고발
당원 모집·고도 완화 상황 전달 등 의혹 수사 촉구
문 의원 “불법행위 가담한 적 없다” 의혹 전면 부인

대규모 미분양 사태를 겪고 있는 제주의 한 브랜드 아파트를 두고 투자사기 의혹에 이어 정치권 로비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투자자들과 중소 하청업체들로 구성된 해당 아파트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시행사가 오영훈 전 제주지사 보좌진에게 유혹주점 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최근 불거진 시행사 대표와 문대림 국회의원 간의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에 나섰기 때문이다.

A아파트 피해자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0일 제주경찰청을 찾아 문 의원에 대해 형법상 알선 수뢰, 시행사 대표 B씨에 대해 뇌물공여 등 혐의를 적용한 고발장을 냈다. 또 수사결과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채, 청탁금

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병합 검토해달라고도 요청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2021년 5월쯤 당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이던 문 의원이 B씨에게 향후 경선에 필요한 당원 모집 지원을 요청했고 이어 200명 이상의 입당원서를 문 의원 측에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비슷한 시기 문 의원이 B씨에게 도청 국장급 공무원이 아파트 고도제한 완화 절차를 챙기고 있다는 취지로 진행 상황을 전달했다는 의혹 등도 나왔다.

대책위는 “당원 모집 요청과 결과 수령, 광고 협찬 등 경제적 지원 상황, 고도완화 진행 상황 전달이 시간적으로 이어지는 만큼 당사자 사이에 묵시적 청탁과 대가관계가 있었는지 수사기관이 객관적으로

규명해야 한다”며 “수사결과 범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벌하고 회계담당자와 관련 임직원의 공모·방조 여부 및 법인 자금의 최종 사용처까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기자들에게 “어떤 불법행위에도 가담한 적이 없다. 수사기관의 빠른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앞서 피해자 대책위는 2022~2023년 세 차례에 걸쳐 시행사가 오영훈 전 도지사의 정무비서관이었던 C씨 등에게 유혹주점에서 접대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B씨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고 경찰은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제주자치도는 해당 아파트와 관련해 논란이 커지자 경찰 수사와 별개로 자체 감찰에 착수해 아파트 인허가 과정 전반 등을 살펴보고 있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골프장 대중제 전환에 반발
경영난 볼카노CC 희생절차

경영난으로 희생절차를 밟고 있는 골프장이 대중제 전환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회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볼카노 골프 앤 리조트(볼카노CC) 회원권 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는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의 회생계획인가에 대한 항소심 결정이 나올 때까지 대중제 전환을 허가·승인하면 안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회생이라는 이름으로 최대 규모의 회생채권자 집단에 현금 변제 없이 회사채와 할인 쿠폰만을 떠 넘기고 회원 지위까지 일괄 소멸시키는 것이 정당한 권리보호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박소정기자

‘불법재판 의혹’ 전 제주지법 판사 수사 착수

공수처, 1년 3개월여 만에 수사

불법재판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된 제주지법 전 판사에 대한 수사가 1년 3개월만에 시작되면서 ‘늑장 수사’라는 규탄의 목소리가 나왔다.

공안단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이하 대책위)는 10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정의를 외면하고 1년 3개월간 침묵한 공수처는 특혜 없이 철저히 수사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해 5월 26일 당시 제주지방법원 소속이던 A 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재판 과정에서 피

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즉일선고를 하는 등 합의를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결을 내려 불법적인 재판을 강행했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은 최근 결심공판을 마치고 바로 판결을 하는 ‘즉일선고’의 경우 재판부가 최종 합의를 위해 잠시 휴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다만 휴정이 필수는 아니다.

대책위는 “공수처는 고발 이후 한차례의 조사도 진행하지 않고, 1년 3개월이 지나고서야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한다”며 “공수처는 A 판사의 직무유기와 위법한 재판 진행을 성역없이 철저히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양유리기자 glassy38@ihalla.com

서귀포 골프장 100kg 멧돼지 출현... 업사가 사살

골프장에 멧돼지가 출현했다. 멧돼지는 40여 분만에 업사에 의해 사살되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9분쯤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의 한 골프장에서 멧돼지가 나타났다라는 신고

가 접수됐다.

이용객들은 현장에서 즉시 대피했으며, 제주도 재난상황실의 요청으로 업사가 출동했다.

업사는 오전 9시 31분쯤 무게 100kg에 달하는 성체 멧돼지를 사살했다. 양유리기자

JM 그룹 제이엠신용정보

빌려주고 못받은돈, 외상대금 등을 돌려받는 일은 제이엠에 맡겨주세요!!

‘한국씨티은행’ 자회사인 ‘씨티크레딧서비스’의 새이름

- 업계 최상 신용조회, 부동산조회 서비스
- 경력이 풍부한 추심직원의 신속한 회수
- 전국 40개 지점망을 연계한 최고의 회수율
- 2022년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부문 대상 수상

대상
채권

상사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외상대금, 투자금 등
민사채권 : 판결문, 공정증서 등 받고 미회결된 개인간의 대여금
금융채권 : 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대금 등
채권매입상담 : 금융채권 매도 상담(매입제휴처 연계)

제이엠신용정보 제주지사
무료상담 ☎ 064)702-0500

* 직원모집 : 영업전문직, 추심전문직을 상시 모집합니다.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 부문
2022년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대賞

그랜드
보청기



24시간 상담/히트브랜드 대상 수상
보청기 고객감사 특별할인!



‘국민건강을 위한 상생협력제품 판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샴푸를 흔저 전화 주십시오! 기다려주세요!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도내 최저가 지향

건강보험 청각장애인 지원금 및 어르신보청기 지원금 안내

NAVER에 그랜드보청기 ㉾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서사라 사거리 북동쪽
시장방면 1층 삼겹구이 서광로 225 2층

제주시버스터미널
서사라 사거리

씨니트요목분양

★ 만감류

- 씨니트 - 한라봉 2년 - 카라 2년
- 달콤, 미래향, 레드스타, 우리향, 맏나눔

‘씨니트’요목 불법 유통 금지 안내

■ ‘씨니트’(품종보호 제6039호)는 「한라종묘」에서 품종보호권자 현성익(서귀포시 상효동)으로부터 2041년까지 전용실시권을 받은 품종입니다.

■ 이에 따라, 타 업체에서는 요목을 생산·판매 할 수 없고, 농가에서도 씨니트 접순을 불법 채취해서 자가요목, 고접, 접순 나눔 행위는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의 사항을 위반한 종자업체 또는 농가에서는 저희 「한라종묘」로 연락을 주시면, 협의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불법 유통이 확인될 때에는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 다이마사키, 레드한라봉, 홍한라봉, 붉은한라봉 등은 (품종명이 아님) 생판신고, 안된 품종이며, 후에 씨니트로 밝혀지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 유통한 요목으로 생산된 과일은 씨니트란 이름으로 유통을 못합니다. (적발시 농가나 유통업자나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유통 조치 현황 · 농가 : 42 농가 · 업체 : 3개 업체

한 라 종 묘

종자업 등록번호 : 제18-서귀포-2005-20-01호

농장주소 :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1000-3, 연락처 : 010-3696-2057